

박해시기 선교사들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으며, 신앙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자신의 장상(長上)인 주교님이나 동료 신부, 고향의 친척 친지들에게 자신의 활동과 생활, 조선의 사정 등을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 선교사들의 사목 활동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 등을 엿볼 수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호부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로서는 1836년 최초로 조선에 입국하여 활동하다가 1839년 9월 21일에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한 모방 신부의 서한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방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 지도부에게 보내는 편지¹⁾

(저번 호에 이어)

[원문 87쪽]

제가 후보 신학생을 모집하려 한다는 말이 퍼져서, 두 소년이 저에게 보내져 왔습니다. 저와 함께 한 달 이상²⁾ 보낸 이들은 (그동안에 알파벳을 배웠고) 유럽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온 소년은 최양업 토마스이고, 다음에 온 이는 (최방제) 프란치스코인데³⁾, 두 소년은 어렸을 때에 귓병을 앓아서 각각 왼쪽 귀가 좀 어둡기 때문에, 두 소년을 (신학공부를 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보내야 할 것인지 저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돌아오는 겨울에 그들을 (외국으로) 보내려고 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보낼지 안 보낼지 잘 모르겠습니다. 착실한 방인 사제가 있으면 조선에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신앙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박해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후보 신학생들을 속히 외국으로 보내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좋을 것인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그 후보 신학생들을 조선에서 교육해야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여러분께 저희의 현실을 똑바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선에 유럽인이 침입했다”는 말이 말단의 군인에게 들려오기만 하면, 아무 때나 터질 수 있는 박해가 즉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소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출처는 파리외방전교회 교문서고 1260권(MEP V.1260), ff.77~94으로, 모방 신부의 자필본이다.

2) 한 달 이상 : 4월 4일자 편지인데 최양업은 2월 6일부터, 최방제는 3월 14일부터 모방신부 댁에 있었다(1836년 12월 3일에 쓴 편지 참조). 따라서 최방제는 모방 신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한 달 이상’이 아니라 20일 정도였다. 김대건은 7월 11일부터 올라와 모방 신부와 같이 있었다.

3) 원문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 추양앵이(tchouyangaipi)’, ‘프란치스코 과출이(Kouatchouri)’로 되어 있다.

조선은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하나의 성(省)에서 일어난 박해의 불길이 그곳에서 가라앉기도 하고, 한 성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옆의 성의 관리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유럽인 한 명이 잠입했다는 소문이 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잡으려고 나라 전체가 즉시 뒤죽박죽이 될 것어요, 그 유럽인이 잡힐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누구보다 후보 신학생들이 먼저 잡히고 희생될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여러분도 (방인 사제 육성의 중요성을 믿으셔서) 조선인 선교사들의 육성⁴⁾을 위한 신학교를 (세우고) 유지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믿으시면, 후보 신학생들을 외국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계획에 찬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 신학생들을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공경하올 고(故) 감사의 명의주교님⁵⁾도 저도 요동에다 조선 신학교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동도 조선 신학교를 세우기에 적합한 곳이 못 된다는 저의 판단과 그 판단을 내리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보내드린 다른 편지에서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요동도 조선 신학교를 세우는 데 적합한 곳이 못된다고 제가 믿게 된 이유는, 첫째로) 신학교가 요동에 있으면 신학생들은 중국 어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까지 배우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고 질리도록 오래 걸린다고 느낄 것입니다. (둘째로는) 요동 지방에 다니는 조선인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유럽인 (선생)들의 지도를 받는 조선 신학생들이 있다는 소문이 금방 퍼질 것입니다. [원문 88쪽] (그 소문이 조선에 즉시 퍼질 것이므로) 조선 왕은 즉시 교회를 박해하고 조선에서 없애려고 할 뿐 아니라, 일본에서 쓴 방법과 같은 방법을 써서, 교회의 재건이 불가능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요동 교회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온건한 관리들이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 그것도 그리스도교인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인데다가 외국인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를 박해하고 없애라는 세 가지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사마다 한두 명의 신학생을 데리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은 후보 신학생들의 자질을 시험하는 일에 불과하지, 이들을 (사제가 되기 위하여) 제대로 교육하는 일이 못될 것입니다. (조선에서) 저는 10명 안팎의 신학생을 한 집에서 모아놓을 수도 없고, (모아놓을 수 있다 해도) 필요한 만큼 그들과 함께 항상 있을 수도 없(어서 그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신학생들을 보내야 할 곳을 잘 모르지만) 마닐라나 싱가포르나 플로피낭(Pulopinang)⁶⁾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동료 여러분의 의도를 알자면 2년이나 3년이 지나야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여러분의 동의를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겨울에 몇 명이라도 르그레주아(Legrégeois) 신부님⁷⁾께 보낼 것입니다.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제가 보낸 후보 신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서 신학교육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조선인 선교사들의 육성 : 방인사제의 육성(양성)은 파리외방전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5) 고 감사의 명의주교님 : 초대 조선대목구장인 브뤼기에르 주교(1792~1835)를 가리킨다.

6) 플로피낭 : 말레이시아 동북부에 있는 섬으로 페낭(Penang)이라고도 한다. 1807년부터 1970년까지 파리외방전교회가 운영하던 '페낭신학교'가 있었다.

7) 르그레주아 신부님 : 르그레주아 신부(1801~1866)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830~1841년까지 마카오 극동대교구 경리부장을 역임했다.

이상과 같이 조선의 그리스도교의 현황을 아는 데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린 다음, 저는 이제 조선의 천주교 유래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ly)[이벽]라고 하는 박식한 조선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중국에서 발행된 최신 서적들을 훑어보다가, 중국에 처음으로 천주교 신앙을 전파한 선교사 본인과 그의 믿음과 지식 등등을 극찬하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 본 것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벽)은 천주교 교리를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사신단을 북경으로 보낼 때에 이(벽)은 자기 친구이며 사신단의 일원이던 이(ly)[이승훈]라는 진사⁸⁾를 설득하여, 사신단을 따라 북경에 갔을 때 이탈리아 출신이요 예수회 소속 '리마두'가 (민고) 가르친 것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리마두'는 마태오 리치 신부의 중국식 이름입니다. 북경에 간 이(승훈)은 프랑스 출신 예수회 소속 신부들이 맡고 있던 성당을 찾아가 프랑스 출신 라자로 수도회 소속이었던 신부에게 (천주교를 배우러 왔다)는 방문 목적을 알렸습니다. (현재 그 신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⁹⁾ 사신단이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에 신부는 서둘러 그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주었습니다. 신부는 또한 이(승훈)에게 조선에 돌아가면 동포들의 개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그에게 여러 권의 교회서적을 주었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이(승훈) 베드로는 자기 친구 (이벽)에게 북경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였고 자기 자신은 (세례성사라는) 놀라운 특은까지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원문 89쪽]

관직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양반이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조선의 관리들과도 상류계층과도 잘 통하던 두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고, 들은 이들 모두가 그 소식을 진리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천주(께서 이벽과 이승훈을 통하여 뿌려주신 믿음)의 씨는 돌밭에¹⁰⁾ 떨어졌습니다. (이승훈이 조선으로 돌아온 지) 약 1년이 지났을 때에, 조선의 왕은, 나라 안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신자로 알려진 사람들을 불러 놓고 그들에게 배교를 한다는 자필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천주교를 버린다는 자필서를 썼지만, 그 후에 왕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그들 모두는 전에 하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전교활동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배교하라는 윗사람의 말을 듣고 거리낌 없이 배교한다는 증서를 쓴) 이 절개 없고 변덕스러운 초대 신자들이 후대 신자들에게 표양이 되었다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죽은 신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신자는 체포되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잘 몰라서 장황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 신자는 나라에서 신자들을 박해하거나 처형할 경우에, 교황청의 군대가 달려와서 (조선을 점령하고) 가해자들을 엄벌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격노한 대비[정순왕후]와 나라의 여러 통치자들은 그 신자에게 사형을 내렸을 뿐 아니라, 그의 머리를 베기 전에 먼저 그의 사지가 여러 토막으로 잘리는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¹¹⁾

8) 진사 : 원문에는 관리(Mandarin)라고 나오는데, 당시 이승훈은 1790년 진사시 합격 이후 관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사라고 번역했다. 모방 신부는 원문에서 9줄쯤 내려가서는 관리(Mandarin)가 아니었다고 했다.

9) 세상을 떠났습니다 : 원문의 'FEU Mr.N'은 '이름을 모르지만, 고인이 된 ○○○'로 번역된다.

10) 돌밭에 : 마태오 복음서 13장 5~6절과 20~21절 참조.

11) 가장 영광스럽게 ... 받게 했습니다 : 황사영 알렉시오와 황사영 백서(帛書) 사건을 가리킨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현재에 살아 있는 신자들 가운데 자기 양심에 반한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주(문모) 신부님께서로부터 세례를 받은 신자가 딱 많으나 배교한 적이 없는 사람은 9명이나 10명 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홉(이나 열)명은 (1801년의) 큰 박해 때에, 어떤 수를 썼는지 모르지만, 무사히 살았습니다. 그때에 체포된 신자들 모두가 사형을 당하거나 배교하고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배교하여 유배지로 간 이들은 목숨을 건졌지만, 부끄럽게 살아야 했습니다. 유배된 그 불쌍한 신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두 번째로 배교한다고 해야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8년 후에¹²⁾ 신자들은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모셔 왔었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지 일년이 다 지나기 전에 왕[정조]은 신부의 입국 사실을 알았으나 신부를 감히 체포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자기의 격분을 다른 이들에게 터뜨려서, 주문모 신부 대신에 신부를 (조선에) 인도한 3명의 신자를 체포하게 하였고, 이 3명의 신자는 잡힌 바로 그날¹³⁾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지) 6년 만에 (곧 1801년에, 타계한 정조에) 이어서 실권을 잡은 이[대비 정순왕후]는 그리스도교를 몹시 싫어하여, 조선에서 천주교를 아예 말살하려 하였습니다. 그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자들을 잡게 한 결과, 신자들은 거의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주(문모) 신부는 스스로 잡힘으로써 대비의 분노를 진정시키기를 바라며 자진해서 법정에서 출두하였습니다. 조선의 법률에 의하면, 조선에서 체포된 중국인은 처형될 수 없는 사람이요, 반드시 중국으로 추방되어 중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원문대조 · 역주 : 최세구(Jézégou) 로베르 신부 (파리외방전교회)

12) 8년 후에 : 문맥상 이벽과 이승훈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후 8년을 말한다. 그런데 조선에 천주교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1784년이므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해가 1795년이므로, 모방 신부가 기록한 '8년 후에'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13) 그날에 : 양력 1795년 6월 28일이요, 3명은 지황 사바, 윤유일 바오로, 최인길 마티아이다.

On a connu mondes de ~~non~~ faire étudier quelques jeunes gens. on m'en a
 envoye' deux qui sont avec moi depuis plus d'un mois ils commencent à lire
 Les livres européens le premier arrive s'appelle Thomas Tchoungangapi, l'autre
 François Kouatchouri, je ne sais encore si nous pourrons l'envoyer car il ont
 ont eu dans leur enfance un mal d'oreil qui les a rendu l'oreille gauche parestine
 de j'avoir pensé à les envoyer l'hiver prochain malgré ce défaut et il est
 encore incertain si je ne les enverrai point. Les ^{bons} prêtres indigènes si l'on
 pourront conserver la foi en cas de persécution. et comme il est à craindre
 quelle ne s'éleve bientôt il est très important de les envoyer le plutôt
 possible. mais on? Si vous pensez à me dire de les garder et de les instruire
 en force je vous prie de considérer qu'ens la persécution qui vous menace
 continuellement venoit à éclater, et il ne faut pour cela qu'un seul mal ^{est} au moins
 de ~~mauvais~~ ^{militaire} il y a ici un Européen que faire d'un jeune gens
 il n'en est pas ici comme en chine on ^{peut} la persécution s'étant dans la province
 ou il a éclaté, ou les affaires d'une province n'occupent aucunement les
 Mandarins de la province ^{voisine} étrangère. le présence d'un Européen dans la force
 la seroit toute bouleverser pour se découvrir. Assurément nos pauvres élèves
 seroient au premier arrêt et Massacres. Si donc vous voulez comme nous
 conserver le séminaire de missionnaires Coréens vous approuverez votre ~~en~~
 manière de les envoyer ailleurs, mais on?
 A pens et d'ailleurs ma conscience me presse de ~~pourrait~~ ^{pourrait} promptement et à l'ou-
~~vrir~~ ^à un charge national je présumerai votre apertement et j'en enverrai
 probablement deux à M. Leprieux dans le mois de ~~le~~ ^{le} prochain. C'est la
 saison la plus convenable pour les sortir de ~~la~~ ^{la} Corée et du Nord de la Chine.
 Les Montres ch. S. de C. et votre serviteur avions pensé à ériger ce séminaire dans le
 Kaotung. je crois vous avoir envoye' dans une autre ^{ces} raisons propres à vous faire voir
 qu'il n'est pas non plus expédient d'établir un séminaire de Coréens dans cette province
 ce seroit le mettre dans une espèce de nécessité d'apprendre la langue chinoise dont
 et par là rendre l'étude de la langue latine difficile, laborieuse et extrême-
 ment lente. d'ailleurs cette maison de Coréens dans une province qui communique
 fréquemment avec les Coréens exposerait la Mission de Corée, au point que l'on ^{ne} ~~ne~~ ^{ne} ~~ne~~
 qu'il ya un séminaire de Coréens avec les Européens il en arriveroit ~~à la~~ ^{à la} ~~Corée~~

[Provider:article] Downloaded by IP 115.21.88.91 at Monday, January 23, 2023 8:41 PM

88

il s'empreseroit de persecuter et de detruire la religion dans son royaume
 et d'opposer ^{à son retour} peut être les obstacles que Du Japon. C'est ^{à son retour} aussi exposer la
 Mission de Kaotung, ^{à son retour} fut et tenter la tolerance des Mandarins qui ^{à son retour}
 contenaient à trois decrets en on ne persecutant pas et ne faisant pas
 renverser ce seminaire, ^{à son retour} d'étrangers, d'étrangers chrétiens, d'étrangers
 Missionnaires. Cependant il est de la dernière ^{à son retour} de terminer un lieu ou leur puits
 se réunir pour les instruire. ^{à son retour} Les Missionnaires ne pourront en avoir plus d'un ou
 deux avec soi, c'est à plus tôt un temps d'épreuve que d'études je ne puis recevoir
 la réponse de votre dessein que dans un ^{à son retour} ans. il est ^{à son retour} d'ailleurs de conserver une
 dizaine de jeunes gens dans une même maison et d'être toujours avec eux
 comme il le faudroit je ne connois point d'autre endroit ^{à son retour} que de la famille
 Sincapour ou de Malacca; je presumerai donc votre sentiment et j'en
 enverrai ^{à son retour} quelques livres prochains ^{à son retour} j'en enverrai ^{à son retour} quel que uns à M. de
 Begevois avec la recommandation de les établir en seminaire dans le lieu
 qu'il jugera le plus convenable.

Voilà ce que je puis vous dire sur l'état actuel du Christianisme en
 Corée.

Voici ce que j'ai apprenu sur son origine.

Un ^{nommé Hy en langue chinoise} Cordon bachelier esthettes ^{chinoise} parcourant de nouvelles éditions
 chinoises sur l'éloge pompeux que l'on faisoit ^{à son retour} que premier Missionnaire
 qui a porté la foi en chine, de sa doctrine, de sa science &c. il en conféra
 avec ses amis et voulut savoir quelle étoit cette doctrine. ^{à son retour} à l'époque ou le
 Roi de Corée envoya des ambassadeurs à pekin il invita un mandarin son
 ami nommé Hy, qui étoit de l'ambassade de prendre des informations sur
 la doctrine de Hy Mateou, Mathieu Ricci ^{à son retour} prêtre italien, ^{à son retour}
 Hy s'introduisit dans l'Eglise des R.R.P.P. Jésuites français à pekin
 et communiqua à feu M. de ^{à son retour} n. Sazariste français ^{à son retour} successeur
 le sujet de sa visite. ^{à son retour} n. S'empres de l'instruire pendant
 l'espace de temps qu'ils passèrent à pekin et le baptisa, il le nomma pierre.
 il lui fit promesse de travailler à la conversion de ses compatriotes lorsqu'il
 seroit de retour dans sa patrie et lui donna plusieurs livres chrétiens.
 pierre ^{à son retour} raconta à son ami ^{à son retour} ce qu'il avoit vu et entendu ainsi que le bien
 fait inoui qu'il avoit reçu. quoiqu'il ne sût point mandarin ni l'un ni l'autre

[Provider:article] Downloaded by IP 115.21.88.91 at Monday, January 23, 2023 8:41 PM

Cependant parce qu'ils étoient de classe noble ils communiquoient avec les
 mandarins et les grands seigneurs ils leur firent de la bonne nouvelle du st.
 Grangile tous s'indentèrent et goûterent la vérité, un grand ^{nombre} voulut embrasser
 la foi, mais hélas M. M. et très chers confères, l'adivine semence tomba sur
 une terre pierreuse, environ un ^{an} après le roi seut qu'il y avoit des chrétiens dans
 son royaume; il les connus et les fit paroître devant lui. il leur demanda
 ensuite d'écrire leur ^{acte} apostasie, tous abjurerent la foi. Ensuite quand ils furent
 hors la présence du roi ils ^{continuerent} à observer la doctrine chrétienne et à
 travailler à la propager tout comme au paravant. il est odieux M. M. et très
 chers confères d'apprendre comme ces funestes exemples des premiers chrétiens
 ont été imités dans la suite. On ma dit que le chrétien dont la mort passe pour
 la plus glorieuse, ne sachant que faire ^{avant} quand il fut arrêté écrivit une longue
 lettre par laquelle il menassoit la ^{reine} ^{soeur} des armées du souverain pontife
 si l'on persécutoit ou mettoit les chrétiens à mort. le ^{roi} ^{gouverneur} du royaume
 et la reine irrités par cette lettre firent ^{mult} ^{plier} son supplice, on lui coupa les
 membres par morceaux, avant de lui trancher la tête, il y en a bien
 peu qui n'aient parlé contre leur conscience ^{à l'heure de la mort}, le fait est que l'on
 n'a pu me nommer que neuf ou dix chrétiens ^{non apostats} baptisés par lui. ces neuf
 cependant ils a beaucoup de vieux chrétiens baptisés par lui, ces neuf se
 sauverent comme ils ^{font} au temps de la grande persécution, et tous
 ceux qui furent arrêtés furent ou mourut ou apostats et ^{par} être transportés
 en exil, à la première apostasie pour se sauver une vie honteuse, ces malheureux
 exilés on ont ajouté une seconde prison renmit dans leur patrie. 8 ans après
 ils introduisirent le R. P. Jacques Tchou. Dans le cours de l'année qui suivit
 son introduction le roi s'appréh. mais il n'osa le faire arrêter, il le chargea de
 son sécul sur trois mal chrétiens qu'ils ^{fit} arrêter et massacrer le même jour.
 5 ans après qui lui succéda plus cruelle enemie du christianisme voulut s'opposer
 de sa part en force, elle fit arrêter autant de chrétiens qu'elle peut. presque tous
 furent arrêtés. le R. P. Tchou croyant approuver sa fureur en se livrant lui-même
 se rendit directement au tribunal de la justice ^{provinciale}, d'après la loi
 Coreenne un chinois pris en force ne doit pas être mis à mort on lui renvoje
 à son roi qui lui fait justice, il observèrent point cette loi, ils commencerent

[Provider:article] Downloaded by IP 115.21.88.91 at Monday, January 23, 2023 8:41 PM

(저번 호에 이어)

[원문 87쪽]

On a connu mon désir de faire étudier quelques jeunes gens. On m'en a envoyé deux qui sont avec moi depuis plus d'un mois. Ils commencent à lire les livres européens. Le premier arrivé s'appelle Thomas Tchouyangaipi, l'autre François Kouatchouri. Je ne sais encore si nous pourrions les envoyer car ils ont [ont] eu dans leur enfance un mal d'oreil^{le} qui a leur rendu la^oreille gauche paresseuse. si J'avais pensé à les envoyer l'hiver prochain malgré ce défaut et il est encore incertain si je ne les enverrai point. De ^{bons} prêtres indigènes si le ~~bœn~~ pourront conserver la foi en cas de persécution. Or comme il est à craindre qu'elle ne s'élève bientôt, il est très important de les envoyer le plutôt possible. Mais où? Si vous pensiez à me dire de les garder et de les instruire en Corée je vous prierai de considérer que si la persécution qui nous menace continuellement venait à éclater, et il ne faut pour cela qu'un seul mot dit au moindre des ~~mauvais payen~~ militaires : il y a ici un Européen, que faire de ces jeunes gens? Il n'en est pas ici comme en Chine où le ^{feu de la} persécution s'éteint dans la province où il a éclaté, où les affaires d'une province n'occupent aucunement les mandarins de la province ~~étrangère~~ ^{voisine}. La présence d'un Européen dans la Corée la ferait toute bouleverser pour le trouver. Assurément nos pauvres élèves seraient les premiers arrêtés et massacrés. Si donc vous voulez, comme nous conserver un Séminaire de missionnaires Coréens, vous approuverez notre ^{dessein de les envoyer ailleurs. Mais où?} ~~en manière de notre conduite. Je ne puis avoir votre réponse avant trois ou 4 ans et d'ailleurs ma conscience me presse de pourvoir promptement à l'éducation d'un clergé national, je présumerai votre assentiment et j'en enverrai probablement deux~~

1) 판독본은 지정환 신부의 판독 자료를 바탕으로 원문과 대조하여 만들었다. 원문 그대로 판독하되 다음의 원칙을 두었다. 1. 몇몇 단순한 철자오기와 예전의 표기는 어법에 맞게 고쳤다. 모방신부는 동사 어미 대부분과 일부 명사·동사어간에서 -ai-를 -oi-로 썼고, sç를 썼고, 약센트를 안 쓴 경우가 매우 많다. 예전 표기 payen은 그대로 두었다. 2. 문장 첫 글자와 고유명사 첫 글자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 대문자로 고쳤다. 모방 신부는 거의 대부분 소문자로 썼다. 3.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장부호(쉼표·마침표·물음표·점따옴표·콜론·세미콜론 등)를 삽입했다. 모방 신부는 특히 쉼표를 안 쓴 경우가 많다. 4. 문맥상 필요한 단어가 빠져있을 경우 < > 괄호에 넣어 삽입했다. 5. 원문에서 빼는 것이 나은 경우 [] 괄호를 했다. 6. 약자는 풀었다. 7. 삭제 표시와 밑줄과 밑줄임표는 모두 원문을 따랐다.

à M^r Legrégeois dans le mois de X^{bre} prochain. C'est la saison la plus convenable pour les sortir de Corée et du nord de la Chine.

Feu Mon très cher Seigneur de Capse et votre serviteur avions pensé à ériger ce Séminaire dans le Leaotung. Je crois vous avoir envoyé dans une autre ^{lettre} des raisons propres à vous faire voir qu'il n'est pas non plus expédient d'établir un Séminaire de Coréens dans cette province. Ce serait les mettre dans une espèce de nécessité d'apprendre la langue chinoise ~~donc~~ et par là rendre l'étude de la langue latine difficile, laborieuse et extrêmement lente. D'ailleurs cette maison de Coréens dans une province qui communique fréquemment avec les Coréens exposerait la Mission de Corée aussitôt que le roi saurait qu'il y a un séminaire de Coréens avec les Européens, ~~il en arriverait de la Corée nouveau~~

[원문 88쪽]

il s'empresserait de persécuter et de détruire la Religion dans son royaume et d'opposer peut-être les obstacles que du Japon ^{à son retour}. Ce serait aussi exposer la Mission du Leaotung, ~~fait~~ et tenter la tolérance des Mandarins qui ~~iraient~~ contreviendraient à trois décrets en ne persécutant pas et ne faisant pas renverser ce Séminaire d'étrangers, d'étrangers chrétiens, d'étrangers Missionnaires. Cependant il est de la dernière ^{importance} de déterminer un lieu où l'on puisse les réunir pour les instruire. Chaque missionnaire ne pourrait en avoir plus d'un ou deux avec soi. Ce sera plutôt un temps d'épreuve que d'étude. Je ne puis recevoir la réponse de votre dessein que dans deux ou trois ans. Il m'est d'ailleurs ^{impossible} de conserver une dizaine de jeunes gens dans une même maison et d'être toujours avec eux comme il le faudrait. Je ne connais point d'autre ~~endroit~~ lieux que Manille, Sincapour ou Pulopinang ; je présumerai donc votre assentiment et j'~~enverrai quelque~~ l'hiver prochain ^{si je le puis} j'en enverrai quelques-uns à M^r Legrégeois avec la recommandation de les établir en Séminaire dans le lieu qu'il jugera le plus convenable.

Voilà ce que je puis vous dire sur l'état actuel du Christianisme en Corée.

Voici ce que j'ai <pu> apprendre sur son origine.

Un Coréen ^{nommé Ly en langue chinoise} bachelier-ès-lettres ~~chinoise~~, parcourant de nouvelles éditions chinoises, lut l'éloge pompeux que l'on faisait du premier Missionnaire qui a porté la foi en Chine, de sa doctrine, de sa science etc. Il en conféra avec ses amis et voulut savoir qu'elle était cette doctrine. À une des époques où le roi de Corée envoie ses ambassadeurs à Pekin, il invita un

mandarin, son ami nommé Ly, qui était de l'ambassade, de prendre des informations sur la doctrine de Ly Mateou, Mathieu Ricci jésuite italien. Ce Ly s'introduisit dans l'Eglise des R.R.P.P. Jésuites français à Peking et communiqua à feu M^r. N. Lazariste français successeur le sujet de sa visite. Ce M^r. N s'empessa de l'instruire pendant l'espace de temps qu'ils passèrent à Peking et baptisa. Il le nomma [de] Pierre. Il lui fit promettre de travailler à la conversion de ses compatriotes lorsqu'il serait de retour dans sa patrie et lui donna plusieurs livres chrétiens. Pierre Ly à son retour raconta à son ami ce qu'il avait vu et entendu ainsi que le bienfait inouï qu'il avait reçu. Quoiqu'ils ne fussent mandarins ni l'un ni l'autre

[원문 89쪽]

cependant parce qu'ils étaient de classe noble ^{et lettrés}, ils communiquaient avec les mandarins et les Grands de Corée. Ils leur firent ^{part} de la bonne nouvelle du St Evangile. Tous en sentirent et goûtèrent la vérité. Un grand ^{nombre} voulut en embrasser la foi. Mais hélas, M.M. et très chers confrères, la divine semence tomba dans une terre pierreuse. Environ un ^{an} après, le roi sut qu'il y avait des chrétiens dans son royaume ; il les connut et les fit paraître devant lui. Il leur demanda ensuite d'écrire leur ^{acte} d'apostasie, tous abjurèrent la foi. Ensuite quand ils furent hors la présence du roi, ils continuèrent à observer la doctrine chrétienne et à travailler à la propager tout comme auparavant. Il est odieux, M.M. et très chers confrères, d'apprendre comme ces funestes exemples des premiers chrétiens ont été imités dans la suite. On m'a dit que le chrétien dont la mort passe pour la plus glorieuse, ne sachant que faire ^{avait} quand il fut arrêté, écrivit une longue lettre par laquelle il menaçait la ~~roi~~ de Corée des armées du Souverain pontife, si l'on persécutait ou mettait les chrétiens à mort. Les gouverneurs du royaume et la reine, irrités par cette lettre, firent multiplier son supplice. On lui coupa les membres par morceaux avant de lui trancher la tête. Il y en a très peu parmi les vivants ^{qui n'aient parlé contre leur conscience} à l'heure de sa mort, m'a-t-on dit. Le fait est que l'on n'a pu me nommer que neuf ou dix chrétiens ^{non apostats} baptisés par le R.P. Tchou. Cependant il y a beaucoup de vieux chrétiens baptisés par lui. Ces neuf se sauvèrent comme ils purent au temps de la grande persécution. Tous ceux qui furent arrêtés durent ou mourir ou apostasier et être transportés en exils à la première apostasie pour se sauver une vie honteuse. Un grand nombre de ces malheureux exilés en ont ajouté une seconde pour revenir dans leur patrie. 8 ans après ils introduisirent le R.P. Jacques Tchou. Dans le cours de l'année qui suivit son introduction le roi l'apprit, mais il n'osa le faire arrêter. Il déchargea son dépit sur trois chrétiens qu'il fit arrêter et massacrer le même jour.

6 ans après qui lui succéda plus cruelle ennemie du christianisme voulut essayer de l'anéantir en Corée. Elle fit arrêter autant de chrétiens qu'elle put. Presques tous furent arrêtés. Le R.P. Tchou, croyant assouvir sa fureur en se livrant soi-même, se rendit directement au tribunal de la justice payenne. D'après les lois Coréennes, un chinois pris en Corée ne doit pas être mis à mort mais renvoyé à son roi qui lui fait justice. Ils n'observèrent point cette loi, ils commencèrent

(다음 호에 계속)

(판독 · 번역 교정) 정혜정 / 본 연구소 연구원